전남대 '국립대 교수 = 철밥통' 깼다

연구실적 부진 조교수 2명 재계약 탈락
사실상 첫 사례…교수사회 큰 파장 예고

전남대학교가 국립대교수의 '철밥통'을 깼다.

전남대가 일단 국립대 교원이 되면 '조교수→부교수→(정)교수'라는 과정을 거쳐 정년 보장이 됐던 승진 관행을 없애 교수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전남대의 이번 재계약 탈락 결정은 기존 심사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내년 이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교수들의 승진·재계약·정년보장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9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은 연구실적이 부진한 2명의 교수(조교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대는 최근 열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2014년 3월1일자 전임교원 재계약 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결과, 2명을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들 두 명의 재계약 불가의 주된 사유는 '연구실적 미흡'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에서는 과거 한 두 차례 전임교원을 재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전직 등 당사자가 원하는 케이스였고 이번처럼 엄격한 심사에 의한 재계약 불가 결정은 사실상 첫 사례로 꼽힌다.

전남대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논문을 안 써도 승진·재계약·정년보장 심사에 무사통과하는 등 느슨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던 국립대 교수사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전남대의 교원들은 조교수가 될 경우 대학측과 계약을 통해 4년 만기 또는 6년 만기로 계약을 한다. 이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이뤄지면 부교수가 되며, 부교수는 5년 계약이다.

이어 부교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승진·재임용은 원래 심사를 통한 계약이었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관행적으로 무사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전남대는 지난해 말 지병문 총장 취임 이후 교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등 경쟁 국립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승진·재계약·정년보장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전남대는 교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번 재계약 불가 결정이 해당 교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나, 교수사회를 긴장하게 해 연구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대 연구·교육역량 강화 방안

- 교수 승진시 '연구실적' 평가 강화
- 조기승진제 도입해 연구실적 높은 교수 우대
  기존 승진 연한의 2분의 1 감축
- 명예교수 추대 요건 강화
  정교수일지라도 연구실적 낮으면 추대 제외
- 연구 장려금 1.5배 확대

한편 이번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2명의 교수는 '전남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갖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겨울엔 스케이트 29일 흩날리는 눈발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에 입장하려는 시민들이 기다랗게 줄을 서 있다. 야외스케이트장은 개장 5일 만에 1만명이 넘는 시민이 찾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폭설·한파…교통사고 잇따라

목포서 1명 사망·영광선 연쇄 추돌 11명 부상…축사 화재도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10㎝의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눈길 사고와 화재가 잇따랐다.

29일 오후 2시30분께 목포시 용당동 한 주택가에서 박모(63)씨의 1t 트럭이 경사면에 미끄러지면서 이를 막으려던 박씨를 치어 박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차량이 주차한 곳의 경사가 45도가량 되고 빙판길이었다는 점, 차량의 기어가 중립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10분께엔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진입로에서 길을 가던 송모(54)씨 등 관광객 3명이 최모(50)씨의 카니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길에 차량이 밀렸다"는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1시께 영광군 군서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50km 지점 영광2터널 부근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이모(여·50)씨 등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터널 앞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 간 1차 사고가 난 뒤 뒤따라오던 차량이 빙판길에 제동을 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9일 오후 2시30분께 함평군 나산면 김모(54)씨의 축사에서 불이 나 송아지와 어미 소 등 10마리가 불에 타 2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손과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축사 내 모터 펌프에서 불꽃이 튀어 짚더미로 옮겨 붙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법원, '9·15 대정전' 국가·한전 연대 배상 책임 판결

재작년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9·15 대정전' 사태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57)씨 등 6명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는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량 정전을 막기 위한 순환정전의 '정당성'과 전기공급약관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한전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전이 예고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미처 피해보상 신청을 못 했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에 관해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6명을 모집해 작년 5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반달곰이 잠자요 지리산에선 "야~호" 하지마세요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동면에 들어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 지리산 반달가슴곰 29마리 중 11마리가 동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반달곰에 부착한 발신기 신호음으로 이동거리를 파악, 움직임이 적은 개체를 찾아가 직접 눈으로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8마리의 곰도 움직임이 적은 것으로 미뤄 곧 동면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운 날씨 탓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반달가슴곰의 동면 시기는 최대 25일, 평균 10일 정도 빨라졌다. 반달가슴곰은 12월 말에서 1월 초 동면에 들고, 체내에 비축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갓 태어난 새끼의 몸무게는 200~300g 정도로 작지만, 동면이 끝나는 4월쯤에는 3~4㎏으로 10배 이상 자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발신기 신호를 분석한 결과 올해 5~7월 새 암수 두 쌍이 계속 함께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동면 중 또 다른 새끼를 출산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이후 지리산에서는 동면기간 중 12마리의 반달가슴곰 새끼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기간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산에서 외치는 '야호'와 같은 소음을 내지 말 것과 동면 장소가 있을지 모르는 샛길로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

유독성 화학물질 운반선 충돌

부산 앞바다 최악 환경재앙 우려

부산 앞바다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케미컬 운반선과 시험운전 중이던 대형 화물선이 부딪쳤다. 이 사고로 두 선박이 불에 타는 등 심하게 훼손됐지만 선원 91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는 29일 오전 2시 15분께 부산 태종대 남동쪽 9.2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지난 28일 밤 9시 45분께 울산 미포항을 떠나 거제 홍도 쪽으로 시험운전 중이던 바하마 국적의 화물선 그래비티 하이웨이(GRAVITY HIGHWAY·5만5000t·승선원 64명)호의 오른쪽 앞부분과 홍콩 국적의 케미컬 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MARITIME MAISIE·2만9211t·승선원 27명)호 왼쪽 옆부분이 충돌했다.

케미컬 운반선은 유독성 화학물질 2만9337t을 싣고 28일 오후 11시 울산항을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충돌과 함께 케미컬 운반선 왼쪽 중앙 3·4번 탱크에 큰 구멍이 나면서 불길이 치솟았다.

케미컬 운반선 옆 부분에 8m 크기의 구멍이 나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했고, 선체도 옆으로 20도가량 기울어 침몰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화학물질은 20여개의 탱크에 나눠 담겨 있는데 이 중 3·4번 탱크가 파손됐다. 3번 탱크에는 파라자일렌 2300t, 4번 탱크에는 아크릴로나이트릴 2150t이 적재돼 있었다. 파라자일렌은 합성섬유를 만드는 데 쓰는 화학물질이다. 또 아크릴로나이트릴은 합성 섬유나 살충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부산 앞바다에서 화학물질을 가득 실고 운항 중이던 케미컬 운반선이 시운전 중이던 화물선과 충돌했다. 해경 소방정이 연기가 솟구치는 케미컬 운반선에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창피한데 웃어? … 새벽 눈길 '꽈당 男' 행인에 주먹질

쌍나팔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남성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생면부지 남성에게 주먹질을 해 경찰서행.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강모(33)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나이트 앞 도로에서 이모(31)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등 폭행했다는 것.

○…강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내린 눈 때문에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창피하고 기분도 나빴는데, 얼굴도 모르는 이씨가 나를 보고 웃길래 화가 났다"며 뒤늦은 후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3타경 11253	1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409-1 장미아파트 나동 4층 401호 87.57㎡	아파트	102,000,000 102,000,000	
2013타경 11802	1	여수시 좌수영로 682-26, 101동 5층 505호 [봉계동,신동아아파트] 59.86㎡	아파트	76,000,000 76,000,000	토지별도등기있음
2013타경 13617	1	광양시 가야로 380, 2동 5층 501호 [광영동,가야아파트] 49.965㎡	아파트	38,000,000 38,000,000	
2013타경 13679	1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 25-0, 207동 1층 108호 [칠성아파트] 39.63㎡	아파트	42,000,000 42,000,000	
2013타경 14009	1	광양시 광영로 141, 106동 10층 1005호 [광영동,현대아파트] 75.80㎡	아파트	75,000,000 75,000,000	
2013타경 14221	1	순천시 안산길 50, 103동 3층 306호 [연향동,코아루아파트] 84.9159㎡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3타경 14771	1	여수시 신월동 100-7 97㎡	대	49,951,080 49,951,0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여수시 신월3길 1 15평1홉3작 부속건물 광3홉 제시외 물치장 4.9㎡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8004	1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산263 4760㎡[공유자김인숙지분2856000분의99155전부]	임야	4,620,000 4,620,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3타경 10090	1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1644 2539㎡	답	15,234,000 15,23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0151	1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133 3868㎡	임야	4,254,800 4,254,800	
2013타경 10267	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308 662㎡	전	9,268,000 9,26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
2013타경 12133	1	광양시 마동 114-90 661㎡[공유자정병남지분[2분의1]전부][환지예정지[8-2BL]로현재는661㎡이나환지후면적은290.6㎡임]	답	127,864,000 127,864,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3타경 13839	1	고흥군 점암면 천학리 1166-1 2043㎡	답	15,935,400 15,935,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3945	1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774-3 4000㎡	답	32,000,000 32,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388 208㎡[물건번호2: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소재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4,281,600 4,281,600	일괄매각
		동소 395 238㎡	대		
2013타경 14665	1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3043-28 1899.8㎡	답	18,998,000 18,99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3072-33 1829.4㎡	답	20,123,400 20,123,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4825	1	순천시 서면 판교리 458-1 137㎡	답	2,466,000 2,46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744 179㎡	답	1,969,000 1,96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순천시 서면 청소리 471-3 202㎡[공유자이기원지분516분의92전부][현황도로]	답	360,000 360,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기타]					
2013타경 11529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68-8 1181.2㎡	대	5,241,385,200 5,241,385,200	일괄매각
		동소 1068-9 1045.1㎡	대		
		동소 1068-8 1층951.08㎡ 2층1203.72㎡ 3층802.68㎡ 4층45.24㎡	여관		
2013타경 13457	1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870-32 126㎡ 제시외 창고 등 11.7㎡[제시외건물포함]	대	185,655,600 185,655,600	일괄매각.공유자유훈지분[15분의2]전부,조옥금지분[15분의13]전부.2013타경13600[중복]2013타경13938[병합]
		동소 870-14 66㎡	대		
		동소 870-14 1층125.86㎡ 2층125.86㎡ 3층117.51㎡[등기부상도로명주소는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계성2길4로되어있으나실지로는보성군벌교읍계두길3-6임]	여관		
2013타경 13785	2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2020 164㎡	농업용창고	40,672,000 40,672,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4. 1. 13.[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1. 20.[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문귀환